예수님을 본받는 12가지 섬김

2026 사순절 가정예배



2026.3.16(월) ~ 28(토)

우리 가정은 (　　) 교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AnYang Church

〈2026 사순절 가정예배 헌금 안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1,000원씩 가정예배 헌금을 모아주세요.
이 페이지의 전개도를 이용하여 가정예배 헌금봉투를 정성껏 만들어 주세요.
* 가정예배를 모두 마치신 후에는 봉투에 담아 교회 봉헌함에 넣어주세요.

2026 사순절 가정예배 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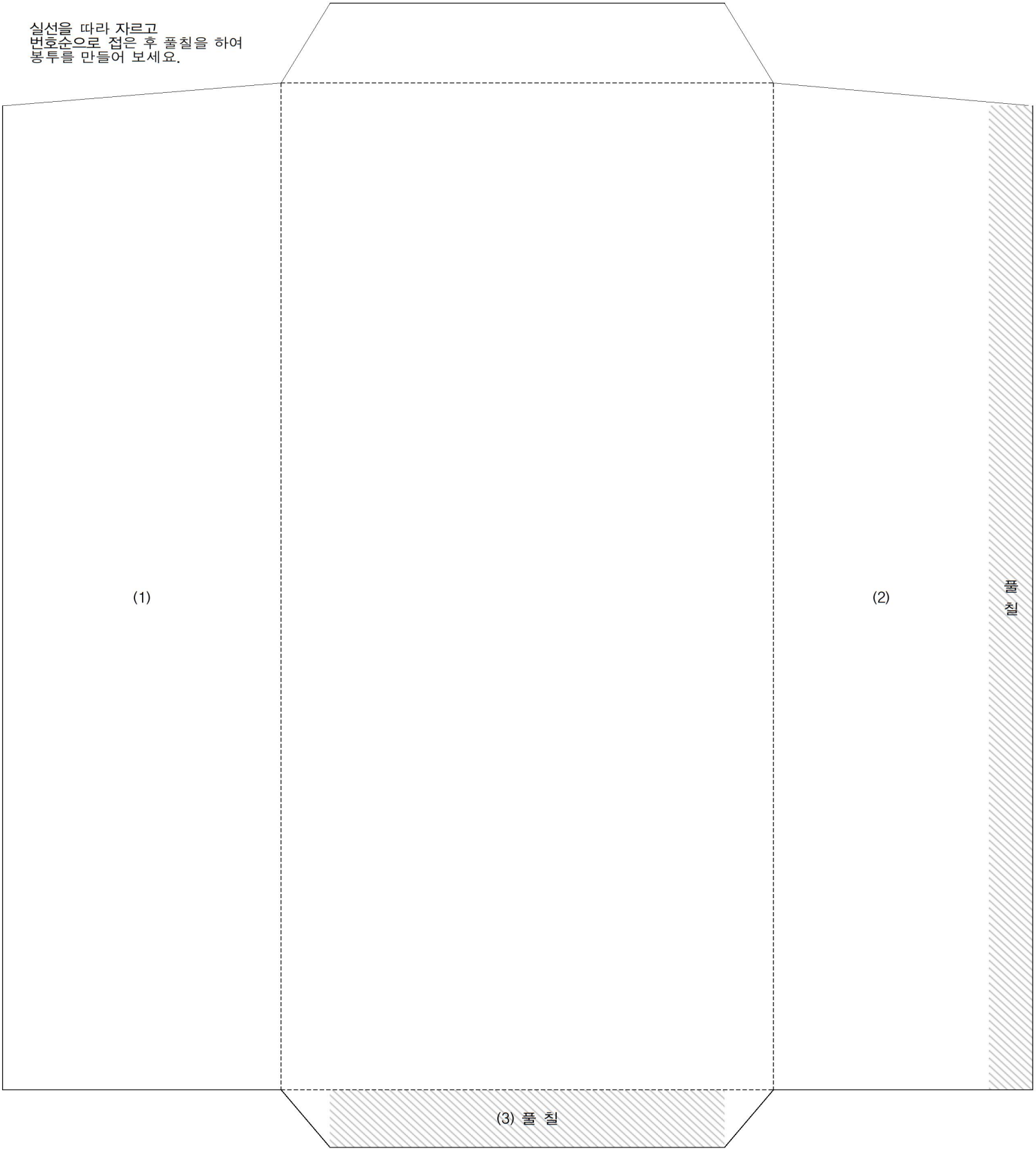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1,000원씩 가정예배 헌금을 모아주세요.
모인 헌금은 국내선교지원교회에 「희망상자」로 전달되어
선교 사역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 름 :　　●헌 금 :　　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1,000원씩 가정예배 헌금을 드리신 후 체크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선을 따라 자르고
번호순으로 접은 후 풀칠을 하여
봉투를 만들어 보세요.



사순절 가정예배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사순절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하세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로 세워나갑니다.



우리 가족의 약속

1.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가족교회의 이름을 정합니다.
2. 예배 인도자는 기도를 하고, 예배에 필요한 성경책, 준비물을 미리 준비 해주세요.
3.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4.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 자녀가 없는 부부 가정이나 1인 가정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정예배 에티켓

1.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기 !
2. 스마트폰과 TV의 전원은 OFF !
3.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

가정예배 순서



찬양 묵상

가족과 함께 찬양을 들으며 귀 기울여 가사를 깊이 묵상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읽기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질문하기

가족이 함께 준비된 오늘의 질문에 답해보세요



기도하기

오늘 말씀과 책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어봅니다.
주어진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묵상 남기기

가정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점을 글짓기, 시, 그림으로 남겨봅시다.
이 작품은 가정예배가 끝난 후 [가정예배 전시회]에 출품됩니다.

3.16.월
첫번째
가정예배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

오늘의 찬양 :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새찬송가 455장)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 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 주 모습 내 눈에 안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3.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 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4.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뭇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후렴]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묵상 찬양

말씀읽기 : 마가복음 10장 45절(쉬운성경)

45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말씀 묵상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부터가 섬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다투던 때, 주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대접을 받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려오신 구주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말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섬김은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누군가의 일을 대신 해 주고, 짐을 함께 들어 주며, 주님의 목적을 우리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질문하기

1. “내가 무언가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자주 올라오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2.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 처럼, 내가 섬기러 가야할 곳은 어디일까요?

기도하기

1. ‘받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서운함이 사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2.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의 짐을 기꺼이 함께 지는 섬김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낮다'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3.17.화
두번째
가정예배

발을 씻기는 낮아짐의 섬김

오늘의 찬양 :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안양찬양집 302)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후렴]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묵상 찬양

말씀읽기 : 요한복음 13장 14-15절(쉬운성경)

14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15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는 낮아짐으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탁에서 주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 씻김은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시며 섬김의 길을 몸으로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말로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먼지와 피곤함을 피하지 않을 때 사랑은 실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인정받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족을 살리는 낮아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질문하기

1. 우리 집 안에서 ‘피하고 싶은 일’ 하나를 뽑는다면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장면을 떠올릴 때, 내가 오늘 기꺼이 맡아야 할 “수건 같은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1. 우리 가정에 교만과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 주는 평안을 주시고, 작은 일로 다투지 않게 하소서.

2.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셨듯, 우리도 눈에 띄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발'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3.18.수
세번째
가정예배

소외된 이를 만지는 다가감의 섬김

오늘의 찬양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새찬송가 405장)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 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 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묵상 찬양

말씀읽기 : 마가복음 1장 40-42절(쉬운성경)

40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42그러자 바로 문둥병이 떠나고 그가 나았습니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소외된 이를 만지시는 다가감으로 섬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병보다 먼저 '거리' 에 살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시선과 규칙이 그를 더 외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피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만지신 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은 치료만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을 다시 품어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도 멀리서 '안타깝다'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든 밖에서든, 외로운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주님을 닮는 섬김입니다.

질문하기

1. 내 마음속에 '거리 두기 버튼'이 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2.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셨듯,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1. 마음에 생긴 벽과 거리두기를 허무시고, 낯섦과 불편함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소서.

2.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져 주셨듯, 우리도 외로운 이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만지다'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3.19.목
네번째
가정예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섬김

오늘의 찬양 : 그 사랑 (안양찬양집 207)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실 오실 그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묵상 찬양

말씀읽기 : 마가복음 14장 14절(쉬운성경)

14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섬김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왔을 때, 주님은 피곤함 속에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필요한 것을 살피시며,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긍휼은 판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누군가의 부족함을 먼저 지적하기보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한마디로 섬김을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하기

1. 오늘 하루 중 가장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순간, 언제 어떤 일이 있었나요?

2.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때, 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1. 쉽게 판단하는 눈을 거두게 하시고, 누군가의 사정을 헤아리는 마음을 주소서.

2. 예수님의 긍휼을 따라, 오늘 우리가 상처 난 사람을 살리는 말과 태도로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긍휼'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3.20.금
다섯번째
가정예배

결핍에 손을 내미는 공급의 섬김

오늘의 찬양 :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안양찬양집 139)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후렴]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진 이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묵상 찬양

말씀읽기 : 마가복음 6장 41-44절(쉬운성경)

41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두 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42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43제자들은 열두 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들였습니다. 44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오천 명이었습니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결핍 앞에서 손을 내미는 공급으로 섬김을 이어 가셨습니다. 들판에 사람이 많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계산하며 “보내어 사 먹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가진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신 뒤 떼어 나누게 하십니다. 그 결과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라는 말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믿음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넉넉해서가 아니라, 작아도 나누기로 결단할 때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질문하기

1. 우리 가정에 요즘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나요?

2. 예수님이 감사로 나누셨듯이, 내가 가진 ‘작은 것’ 중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기

1. 부족함 앞에서 불안과 원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게 하소서.

2. 우리 손의 작은 것이라도 감사로 드리며 나누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오병이어'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3.21.토
여섯번째
가정예배

슬픔 곁에 머무는 위로의 섬김

오늘의 찬양 : 일어나 걸어라 (안양찬양집 100)

1.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2.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후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묵상 찬양

말씀읽기 : 요한복음 11장 33-35절(쉬운성경)

33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34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35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슬픔 곁에 머무는 위로로 섬김의 깊이를 보여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먼저 그 눈물 앞에 멈추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슬픔을 급히 덮지 않으시고,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숨 쉬십니다.

위로는 정답을 빨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누군가 힘들어할 때, 설명으로 서두르기보다 함께 있어 주는 시간으로 섬겨야 합니다.

질문하기

1. 누군가 울거나 힘들어할 때, 나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나요?

2. 예수님이 함께 우신 것처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말 없는 위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1. 우리에게 있는 눈물과 상처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픔을 숨기지 않고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2. 예수님이 함께 우셨듯, 우리가 ‘고치려는 말’보다 ‘곁에 있어 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눈물'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3.23.월
일곱번째
가정예배

회복을 돕는 치유의 섬김

오늘의 찬양 :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새찬송가 270장)

1.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3.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4.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후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희게 하셨네

묵상 찬양

말씀읽기 : 누가복음 4장 18-19절(쉬운성경)

18"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19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회복을 돕는 치유로 섬김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며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치유가 몸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묶임, 죄의 사슬, 절망의 어둠까지 포함하며,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삶을 실제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붙드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더 작아지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손길로 섬겨야 합니다. 작은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질문하기

1. 지금 나를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있나요?

2.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아픔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나요?

기도하기

1. 가난한 마음과 묶인 생각에서 우리를 풀어 주시고, 지친 심령에 해방된 기쁨,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2. 우리 가정이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세워 주는 손길과 지혜를 주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자유'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3.24.화
여덟번째
가정예배

하나님 집을 바로 세우는 진실의 섬김

오늘의 찬양 :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안양찬양집 224)

정결한 맘 주시옵소사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묵상 찬양

말씀읽기 : 마가복음 11장 15-17절(쉬운성경)

15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16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7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하나님 집을 바로 세우는 진실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기도의 집이 장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자리에 소란이 커지고, 예배가 흐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뒤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화풀이가 아니라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회복의 행동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로 다시 세우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하나님께 다시 향하도록 길을 바로잡는 정직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분주함이 예배를 삼켜 버렸다면, 진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하기

1. 나를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시장'같은 우리 집의 공간이 있나요?

2.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무엇이 내 '시장'같은 공간을 조용하게 만드나요?

기도하기

1. 우리 가정의 예배가 습관과 소음에 삼켜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정직하게 바로 세워 주소서.

2. 예수님이 기도의 집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기도를 세워가며 지어져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하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하나님의 집'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3.25.수
아홉번째
가정예배

기도로 뒤에서 떠받치는 중보의 섬김

오늘의 찬양 : 누군가 널 위해 (안양찬양집 186)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있지 못하네

[후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묵상 찬양

말씀읽기 : 요한복음 17장 21-23절(쉬운성경)

21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2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23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 묵상

예수님은 기도로 뒤에서 떠받치는 중보로 섬김을 마무리까지 붙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둔 밤,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까지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십니다.

중보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을 버티게 하는 숨은 기둥입니다. 오늘 가정예배 자리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 기도가 마음의 벽을 낮추고 섬김의 길을 열어 줍니다.

질문하기

1.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2. 버티기 어려운 순간에 날 위해 기도해주는 버팀목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도하기

1.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낯설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하소서.

2. 예수님이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셨듯, 우리 가정 안에 분열의 틈을 막아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중보기도'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3.26.목
열번째
가정예배

함께 동역하게 세우는 파송의 섬김

오늘의 찬양 : 주님 말씀하시면 (안양찬양집 81)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 하신 그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묵상 찬양

말씀읽기 : 요한복음 20장 21-23절(쉬운성경)

21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23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함께 동역하게 세우는 파송으로 섬김을 우리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 사명을 맡기십니다. 또한 성령을 주셔서 혼자 버티지 않게 하십니다.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로 흘러가는 사명입니다. 가정은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서 배운 사랑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한 사람을 세우는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보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질문하기

1. 내 일상에서 "나는 보냄 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장소가 있나요?

2.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료로 만들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기

1. 두려움으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함께 섬김으로 세워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2.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시니,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작은 순종을 하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함께'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3.27.금
열한번째
가정예배

원수까지 품는 용서의 섬김

오늘의 찬양 :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안양찬양집 193)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 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묵상 찬양

말씀읽기 : 누가복음 23장 34절(쉬운성경)

34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원수까지 품는 용서로 섬김의 가장 넓은 자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너무 무겁기에, 그 값을 자신이 지시고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오래된 서운함이 있다면, 이기려는 말 대신 용서의 한 문장으로 섬김을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하기

1. 복수해주고 싶은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을 때,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2. 예수님이 내 대신 해결해 주신다면, 마음 놓고 주님께 맡길수 있나요?

기도하기

1. 우리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를 주님께 맡깁니다.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소서.
2. 우리도 미움의 반복을 끊게 하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 주는 용기를 주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원수사랑'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3.28.토
열두번째
가정예배

십자가로 완성되는 사랑의 섬김

오늘의 찬양 :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새찬송가 461장)

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2.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3. 주께 네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4.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후렴]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따라 살아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묵상 찬양

말씀읽기 : 요한복음 13장 1절(쉬운성경)

1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기내어줌으로 사랑의 섬김을 끝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끝까지’는 오래 참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배신을 아시면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사순절의 섬김은 더 착해지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이 사랑에 다시 붙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고, 내어주셨기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드릴 수 있는 작은 시간, 작은 양보, 작은 친절이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는 길이 됩니다.

질문하기

1. "끝까지 사랑"의 끝은 얼만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2.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듯, 오늘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작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1.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정이 다시 붙들게 하시고, 사랑이 식지 않게 하소서.

2. 사순절 가정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열매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남겨봅시다.

오늘의 추천 주제 : '십자가'

※꼭 추천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2026 사순절 가정예배

함께 만드는 가정예배

가정예배에 참여하시고 느끼신 점을 적어주세요.
참고하고 더 좋은 가정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가정예배 설문지는 사진을 찍어 '가정예배 조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나 또는 QR 설문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았던 점

가정예배를 드리며 **좋았던 점**을 적어주세요.

아쉬웠던 점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쉬웠던 점**을 적어주세요.

바라는 점

이후 제작될 가정예배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안양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



HOMEPAGE www.anyangch.net
YOUTUBE www.youtube.com/안양교회TV

2026 사순절 가정예배/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교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49번길 24)/

제생지 사용: 안양교회 가정예배지는 환경을 생각하여 제생지로 인쇄됩니다.